DS INVESTMENT & SECURITIES

Company Comment

[2차전지]

중국 단계적 수출세 환급 축소 Comment

최태용 자동차·2 차전지 02-709-2657 tyc@ds-sec.co.kr

2026.01.19

배터리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중국 정부의 의도

중국 정부는 태양광 및 배터리에 대한 수출 부가가치세(VAT) 환급 폐지를 발표했다. 태양광은 2026년 4월부터 폐지, 배터리는 환급률을 기존 9%에서 6%로 낮춘뒤 2027년부터 완전 폐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중국 정부의 공급 조절 기조는 명확하다. 이번 조치는 작년 3월 전기차 업체에 대한 부채비율 관리, 3Q25 장거광업과 CATL의 광산 채굴 중단, 11월 배터리 수출 통제(1년 연기)와 궤를 같이한다. 과거 지방 정부 주도로 난립했던 배터리 공장들을 정리하고, 보조금 없이 자생 가능한 상위 기업 위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재정 건실화다. 수출세 환급은 사실상 해외 완성차 업체에게 중국 세금으로 보조금을 주는 것과 같다. 이를 폐지해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저가 수주로 연명하는 한계 기업을 자연스럽게 퇴출할 수 있다. 둘째는 대외 무역 마찰에 대한 선제적 방어다. 미국과 유럽이 제기하는 공급 과잉 문제에 대해 중국 정부가 스스로 생산 능력을 조절하고 있다는 명분을 쌓을 수 있다. 이는 향후 무역 분쟁에서 CATL이나 BYD 같은 핵심 기업들이 불공정 보조금 제재 타겟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도 해석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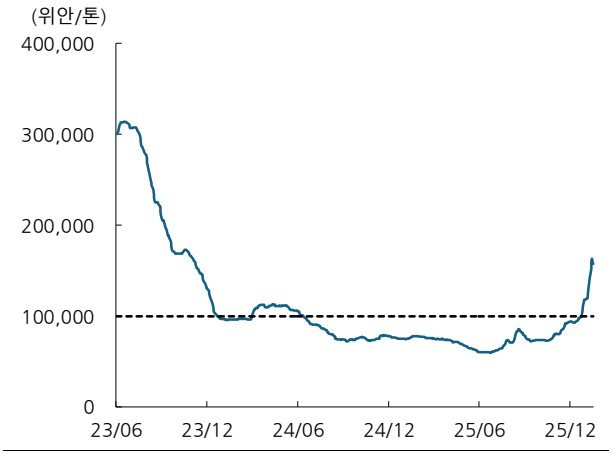
1Q26 중국발 밀어내기 수출 급증과 리튬 가격 강세 전망

올해 1분기 시장은 마진 방어를 위한 중국발 밀어내기 수출과 리튬 가격 강세가 예상된다. 4월 1일부터 환급률이 9%에서 6%로 축소 시 중국 배터리 기업은 수출분에 대한 OPM이 즉시 3%p 하락한다. 이익률이 낮은 중소형 업체에게는 생존과 직결되는 수준인만큼 시행일 이전 제품을 선적해 환급액을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연말까지 폐지 유예 기간을 둔 점은 환급 폐지 시 발생할 공급 중단 사태를 방지하고 기존 장기 계약의 판가 전가 협상 시간을 벌어주기 위함이다. 한편, 리튬 가격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CATL은 2월 춘절 이후 이춘 광산을 재가동할 가능성이 높다. 광산 라이선스에 대한 이춘시의 환경영향평가 공고(12월 19일)는 통상적인 흐름(2~3개월 소요) 감안 시 2월 중순 행정 절차가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 리튬 가격 강세로 채산성(톤당 8~10만위안 이상)도 확보된 가운데 4월 밀어내기 물량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도 주요하다. 다만 과잉 공급을 지양하는 정부 기조를 감안 시 재개 직후 풀 가동할 유인은 낮아 리튬 가격 강세는 상반기 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2Q26부터 시작되는 한국 기업의 반사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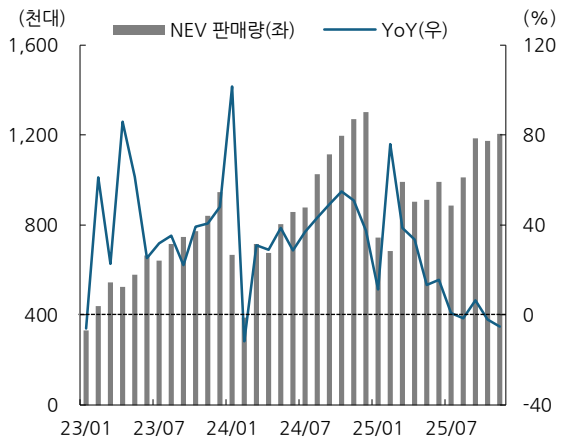
비(非)중국 업체는 중국발 밀어내기 이후인 2Q26부터 점유율 확대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핵심은 공급 감소와 더불어 구조적인 가격 격차의 축소다. 그동안 중국산 배터리가 한국 대비 15~20% 저렴했던 배경에는 9~13%에 달하는 정부의 환급 혜택이 있었다. 이번 조치로 환급이 축소 및 폐지되면 중국 업체들은 줄어든 보조금만큼 판가를 인상해야 수익성이 유지된다. 당장 한국 기업이 가격 우위를 점하긴 어려우나 과거와 같은 중국의 초저가 덤핑은 불가능해진다. 시기적으로는 2Q26부터 중국 내 재고 소진에 따른 공급 감소 효과가 가시화되고 환급이 완전 폐지되는 2027년부터는 중국 업체의 원가 부담 가중으로 본격적인 가격 경쟁력 격차 축소가 확인될 전망이다.

그림1 탄산리튬 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중국 EV(BEV+PHEV) 소매판매 추이



자료: CPCA,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중국 상무부 태양광 등 제품의 수출 퇴세 정책 조정에 관한 공고

中华人民共和国财政部
Ministry of Finan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세정사

태양광 등 제품의 수출세 환급 정책 조정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고시 제2026년 제2호

태양광 등 제품의 수출세 환급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2026년 4월 1일부터 태양광 및 기타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출세 환급이 취소됩니다. 구체적인 제품 목록은 부록 1을 참조하십시오.

2. 2026년 4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전지 제품의 부가가치세 수출환급률을 9%에서 6%로 인하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전지 제품의 부가가치세 수출환급을 취소한다. 구체적인 제품 목록은 부록 2를 참조하십시오.

3. 상기 제품 중 소비세가 부과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소비세 정책을 조정하지 않으며 소비세 환급(면제) 정책을 계속 적용한다.

4. 이 발표에 나열된 제품에 적용되는 수출세 환급률은 수출 물품 신고서에 표시된 수출 날짜로 정의됩니다.

특별히 공지합니다.

재무부 세무총국

2026년 1월 8일

첨부 파일 다운로드:

부록 1: 태양광 등 제품 목록.pdf

부록 2: 배터리 제품 목록.pdf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